

옛 용포공예원 새 단장 예고

드림연수원서 해당 부지·건물 매입… 무주군, 관광자원 연계 효과·상권 활성화 등 기대

무주군은 무주IC와 무주읍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옛 용포공예원이 민간 참여 개발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드림연수원에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앞으로 지상 4층 규모에 160여 객실과 대 교육장(4백 명 이상 수용), 소교육장,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서 청소년 연량 강화와 인성 및 진로 탐색, 소통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연수시설로 운영(투자계획 규모 약 450억 원)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개발로 무주군은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관내 일자리 창출(70여 명)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교육·연수시설로 용도 지정해 올 1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을 진행했으며 최



무주드림연수원 조감도

고가 낙찰 방식에 따라 8억 4천 5백만 원에 매각해 무주군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며 “지정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도 등기해 현실화 기반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1970년에 학교 시설로 준공됐던 이곳은 2006년~2008년 매입 증축돼 2016년까지 용포공예원으로 활용됐으며 시설 노후로 인해 2021년 용도 폐지,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 시설 활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주군은 해당 시설을 용도 지정 매각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무주군, 16억 2000만 원 투입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을 통한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홍보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6억 2천만 원(군비 50%, 자급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브랜드 로고가 찍힌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리벨, 스티커, 쇼핑백, 유리병 등의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자연특별시’라는 무주군의 새로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무주방문의 해’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장재 지원 품목은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과일 4종을 비롯해 블루베리 등 일반 농특산물, 머루와인 등 가공식품 등이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서 농특산물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과 작목반, 조합 등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곳에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과일류(4종)와 일반 농특산물은 농협과 영농조합에 그리고, 가공식품(와인과 공업체 포함)은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과일류의 포장재 단가는 품목별 2023년 평균 단가(kg당)를 적용하며 당해 계통 출하량이 최종 확정되는 11~12월에는 보조 금액이 확정된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경영체등록증 확인이 꼭 필요하다. 비례통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80만 원까지 지원(신청 시 경영체등록증 확인 필수) 하며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는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무주군에서 30% 이상 원료수매를 해야 하며 지역인 3명 이상을 3개월 이상 고용한 업체에 대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2백만 원을 지원한다.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신청 시에는 공통사항(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표준제작증명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을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대표상징물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장수군이 29일 ‘장수군 대표상징물(CI)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서장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함께 용역의 과정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장수군의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외적인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군이 현재 사용하는 CI는 1999년에



제작된 것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변화된 군의 양상과 미래 발전 방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수군의 새로

운 CI 제작이 필요한 때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7월까지 △기본 및 용용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등 용역을 추진해, 군민이 공감하는 대표상징물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새롭고 희망찬 느낌의 대표상징물(CI)을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장수군의 차별화된 잠재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그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과 농촌경제 연구원 등 많은 지역 연구기관에 따르면 미을

의 특성과 협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며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유후화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11개 읍·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협약을 통해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의 시설 신축이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당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부과와 이용시간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국비화보나 사업추진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시설관리가 우선이라며 기존 시설물 활용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루라 의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농촌협약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는 29일 열린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부권 등산학교 조성 필요”

진안군의회, 유치 건의안 채택… “공립 아닌 국립으로 조성돼야”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29일 열린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며 “열악한 지역체계 등록증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동규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건강 유지 및 올바른 등산 문화 확산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등산·트레킹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등산학교조성 사업비 국비 전환 촉구, △서부권 등산학교 진안군 유치를 촉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신림청, 전리북도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2024년도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2023년도 20%의 의무기준 산재, 동당 지원액 300만 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 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 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 확인서 등은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9일 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량은 주거용 45동, 비주거용 25동으로 전년도 150만 원에서 하반기 추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청년의 지역경쟁력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청년창업 더하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흙보비 및 미케팅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 당 3,000만 원(보조금 1,8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2명을 최종 선발한다. 한편 창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별도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참여자 모집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